

葛峯 金得研의 '元朝'詩 攷

이 구 의*

目 次

1. 머리말
2. '元朝'詩의 사적 전개
3. '元朝'詩의 형식적 특성
4. '元朝'詩의 내용과 의미
5. '元朝'詩의 사적 의의
6.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경상도 안동에서 순수 處士로 살다 간 葛峯 金得研¹⁾ (1555, 명종 10 - 1637, 인조 15)의 다양한 작품²⁾ 가운

* 상주대학교 교양과정과 교수

1) 葛峯 金得研(1555, 명종 10 - 1637, 인조 15)은 字가 汝精이요, 본관은 光山이다. 그는 惟一齋 金彦磯(1520, 중종 15 - 1588, 선조21)의 세 아들과 두 딸 가운데 큰아들이다. 그가 태어난 지 10달만에 母夫人을 여의고 조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고 가정에서 배운 학문도 典實하였다. 그는 退溪 李滉(1501-1572)의 及門弟子이면서 벼슬길을 단념하고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던 그의 아버지 惟一齋 金彦磯로부터 가학을 전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月川 趙穆을 비롯하여 西厓 柳成龍, 栢潭 具鳳齡, 寒岡 鄭逵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퇴계학의 본령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학문적 진로를 정하였다. 유일재가 퇴계를 우리 나라에 있어 程朱學의 유일한 적통으로 생각했던 퇴계의 及門弟子였으며, 일천 이하 갈봉이 중유하던 사람들이 모두 유일재와 더불어 퇴계학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던 동문들이었다.

그의 나이 38세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창의하여 집안 살림을 내어

데 ‘설날 아침[元朝]’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갈봉은 많은 양의 한시와 가사, 시조를 남겼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하는 文이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갈봉에 대한 연구³⁾는 주로

義倉을 설치하여 군대를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는 한편, 명나라 군대의 종사관들을 접견하는 일을 맡았다. 그가 비록 전쟁에 참여하여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은 없으나 “경상도 6진이 모두 무너졌지만 안동이 무사하였던 것은 모두 김득연의 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활약을 하였다. 이 때 원군으로 참여했던 명나라 군사들은 그의 충의뿐만 아니라 그의 문장에 크게 감동하여 이를 찬양하는 시와 문을 남겼다.

이처럼 갈봉이 활동하던 시기는 조선 왕조가 정치·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격변의 상황을 맞고 있던 때였다. 16세기 전반 정국을 주도한 훈구·척신세력들은 그들에 비판적인 사림세력에 士禍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 바로 그의 선조가 안동으로 낙향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선조의 유훈에 따라 과거 시험에 뜻을 두지 않았다. 다만 1612년(광해군 5)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북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나라에서 세 번이나 불러 벼슬을 주려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부친인 유일재 공의 묘 아래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止水亭이라 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동지들과 강론하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시를 읊조리기도 하였다. 이 때에 같이 노닐던 동지들은 金圻, 金鈴, 琴撥, 權暉, 權泰一, 襄龍吉, 權益昌, 柳友潛, 李敬遠 등이다.

- 2) 필자가 그의 문집인 『萬峯先生文集』(乾, 坤冊, 서울 : 旴晨社 影印本, 1982)에 실려 있는 작품 수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詩로는, 오언절구가 21題 27首(측성운이 3수), 오언율시가 64제 68수(측성운이 1수), 칠언절구가 271제 360수, 칠언율시가 91제 106수이다. 절구와 율시 만을 합하면 445제 559수가 된다. 그리고 排律 또는 長律이 38수, 古體로 된 長句가 1수, 오언고시가 2수(1수 4구씩), 長短句로 된 것이 11수, 5언 6구로 된 것이 6수이다.

文으로는 편지 1편(『答校中士林書』)와 잡저로 錄 1편(『淸涼山遊錄』), 記 2편(『止水亭記』, 『龍洞精舍記』), 序 1편(『友說贈張漢寶陳肖東朱明字諸君子』), 跋文 2편(『書松巢遺卷後』, 『書權同景漸龍鶴跋序後』), 祭文이 16편이 있다.

국문으로 된 작품은, 歌辭에 『止水亭歌』 1편이 있다. 그리고 時調에, 『山中雜曲』 49수, 『感拜會酌以菊花酒歌而謝之』 3수, 『僉尊老友友雨齊會又以歌謝之』 3수, 『咏懷雜曲』 5수, 『戲咏赤壁句又歌三疊歌』 3수가 있다. 즉, 국문으로 된 작품 수는 가사 1편과 시조 63수이다.

- 3) 金容稷, 『萬峯 金得研의 作品과 生涯』, 『創作과 批評』 7권 1호, 서울 : 창자과 비평사, 1972. 봄.

宋政憲, 『萬峯先生의 遺墨考』, 『論文集』 10, 청주 : 충북대학교, 1976.

서지학적인 측면과 시조에 치우쳤다.

일반적으로 '원조(元朝)'라는 말은 '설날 아침'을 가리킨다. 설날 아침에 자신의 생각을 읊은 시가 바로 원조(元朝) 시이다. 물론 그 지은 시기는 설날 아침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설날에 지었다. 그의 「설날 아침(元朝)」시는 모두 13 수가 있다. 그 가운데 같은 해, 같은 날 두 수를 지었는데, 한 수는 시인 독자적으로 지은 것이고 다른 한 수는 남의 시에 화답한 것이다. 이 「설날 아침(元朝)」시는 그의 만연에 지은 작품들이다. 즉, 그의 나이 66세 되던 해 설날 아침부터 80세 되던 해 설날 아침까지 지은 시이다. 그가 여든 세 살까지 살았으니, 죽기 3년 전까지 지은 시로 그가 지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형식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형식상의 특성은 비단 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한문학사에 다소 기여함이 있다.

본고에서는 갈봉의 「설날 아침(元朝)」형식과 내용이 그의 의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설날 아침(元朝)」시의 개관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이 다른 사람이 지은 것과 어떠한 변별력을 지니는가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변별 점은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그의 작품이 우리 문학사에 어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 목차의 순서대로 본고를 진행하기로 한다.

宋政憲, 「葛峯 時調考」, 『朝鮮前期 言語와 文學』, 한국언어문학회, 1982.

이상원, 「16세기말 - 17세기 초 사회동향과 김득연의 시조」, 『어문논집』31, 서울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1992.

이주연, 「김득연 시조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6.

李九義, 「葛峯 金得研의 문학세계」, 『韓國哲學』19집, 대구 :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1.12.

李九義, 「葛峯 金得研의 止水亭詩와 止水亭歌攷」, 『南冥學報』, 진주 :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2.2.

2 ‘元朝’詩의 사적 전개

중국의 경우, 당나라 이전은 ‘원조(元朝)’라는 제목이 붙은 시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과묵한 탓도 있겠지만, 문헌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5만 수에 가까운 『全唐詩』 전체를 검토한 결과, 당나라 때의 작품으로 ‘원조(元朝)’라고 이름 붙은 시는 한 수가 있다. 바로 張說의 ‘설날 아침(元朝),⁴⁾ 시가 그것이다. 이 시 제목 밑에는 작은 글자로 ‘유주에서 설날 아침(一作幽州元日)이라 하기도 한다.’ 고 注를 달고 있다. 그 시의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今歲元日樂 올해 초하루의 즐거움은,
不謝往年春 지난해 봄 사양하지 않네.
知向來心道 지난날 마음 길 알았으니,
誰爲昨夜人 누가 간밤의 사람 위하리.

중국에서 ‘원조(元朝)’라 제목이 붙은 시가 거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민속학 분야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歲時記 등의 문헌을 참고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멀리 고려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陶隱李崇仁의 「정미년 설날 아침(丁未元朝),⁵⁾이라는 시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歲次無停畢 세월은 멈춤이 없건마는,
人情易歎吁 인정은 탄식하기 쉽다네.
椒盤聞古頌 초반에 옛 노래를 들으며,
桃板覓新詩 도판에서 새 시를 찾노라.
日照窮陰破 햇빛 비쳐 그늘 깨뜨리고,

4) 『全唐詩』 卷89 - 18.

5) 『陶隱集』 卷2.

風吹萬態敷 바람부니 온갖 양태 펼치네.
 頭顛還似舊 머리는 도리어 옛 같은데,
 祗得飲屠蘇 공경히 도소주를 마신다네.

위 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은은 설날의 여러 儀式에 사용했던 절차를 시 속에 담고 있다. 즉, 설날에 쓰는 술[椒酒, 屠蘇酒]과 안주를 얹어 차린 소반인 椒盤이나, 설날에 마귀를 쫓기 위하여 문짝에 붙이던 복숭아 나무로 만든 나무 조각인 桃板[桃符]이 그것이다. 또 後漢의 華陀 또는 唐나라의 孫思邈의 처방이라고 하는데, 술에 넣어서 年初에 마시는 약의 이름인 屠蘇인데, 山椒·防風·白朮·蜜柑皮·肉桂皮 등을 조합하여 만든다고 한다. 이것을 마시면 한 해의 나쁜 기운[邪氣]을 없애며 오래 살 수 있다 한다. 이처럼 도은의 시에서는 설날의 儀式을 읊조리고 있다. 이처럼 현재 전하는 고려 시대의 작품은 목은과 도은의 것 두 수뿐인데, 목은의 시는 실제 「설날 아침(元朝)」시에 포함시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순수하게 '설날 아침'을 시의 제재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보면 고려 시대까지의 작품으로는 도은의 시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서 가장 먼저 나온 시는 估畢齋 金宗直의 「설날 아침에 통지 형 시에 화답함(元朝和通之兄)」⁶⁾이란 제목 밑의 두 수의 시이다. 그 첫째 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東村遙望鶴巢高 동촌에서 멀리 바라보니 학의 둥지 높고,
 賀歲家家鬧婦姑 새해 축하 소리 집집마다 부녀자 바쁘네.
 鄉里淳風猶似舊 시골의 순박한 풍속은 옛날과 같나니,
 燈前老我不堪孤 등불 앞에 늙은 이 몸 외로움 못 견디겠네.

라 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주

6) 『估畢齋集·詩集』卷15.

히 음식을 장만하고, 왁자지껄 떠들며 서로 인사하는 광경을 먼저 묘사했다. 이것을 본 자아⁷⁾는 그 순박한 시골의 풍속이 예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돌이켜 자신을 생각하니 이미 늙어 버렸다. 늙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벗할 친구들이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주고받지만, 자아의 속마음은 외롭기만 하다. 이 시는 칠언절구로 작시 기법으로 말하면 興體라 하겠다.

또 晦齋 李彦迪도 「정미년 설날 아침에 감회가 있어(丁未年元朝有感)」⁸⁾이라는 시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설날 아침에 다섯 잠언(元朝五箴)」⁹⁾을 짓기도 했다. 앞의 작품을 들면 다음과 같다.

春秋五十七 내 나이 쉰 일곱이 되었으니,
 知命又知非 천명 알 나이나 알지 못한다네.
 鶴髮年垂耄 늙어 쉰 머리 해마다 드리우니,
 孤臣數亦奇 이내 팔자 기구하기도 한고야.
 天時雖遇泰 천시가 비록 태평세월 만났으나,
 人事未離睽 인간사 어그러짐 헤어나지 못해.
 舉世無相識 온 세상에는 서로 아는 이 없고,
 蒼蒼獨我知 저 푸른 하늘만이 내 마음 알리.

라 하여 시인 자신의 생각을 읊조리고 있다. 자아, 즉 시인의 나이 쉰 일곱 살 때 그는 尹元衡 일당이 조작한 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강제로 유배되었을 때였다.¹⁰⁾ 자아는 새해의 아침이 밝았지만, 자신의 처지가 희망적이거나 즐겁지 못함을 묘사하고 있다.

7) 자아는, 서정적 자아 또는 작중 화자, 시 속의 화자를 지칭한다. 이를 간략히 자아라 부르기도 한다.

8) 『晦齋集』 卷3.

9) 『晦齋集』 卷6.

10) 『晦齋集』 卷5, 「史傳」을 보면, “仁宗昇遐, 遂有乙巳之禍, 罷歸其鄉後二年, 謫江界府七年而卒.”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가 63세에 죽었으니, 강계에 도착한 해 아니면 그 다음 해였을 것이다.

회재 시의 뒤를 이어 호음 정사룡의 「기유년 설날 아침 병으로 누운 느낌(己酉年元朝臥病感懷)」(『湖陰雜稿』권4), 蘇齋 盧守愼의 「설날 아침에 혼자서 몇 쪽박의 술을 마시고 마음대로 두 수의 읊시를 읊조림(元朝自酌數瓢放吟二律)」(『蘇齋集』권3)과 「정묘년 정월 설날 아침(元朝丁卯正月)」(『蘇齋集』권5)가 있다. 이어서 聽天堂 沈守慶, 栢潭 具鳳齡, 雲川 金涌의 시가 있으며, 그 이후로는 숫자가 늘어나, 현재 『韓國文集叢刊』240책까지에 실려 있는 「설날 아침(元朝)」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는 140여 수에 달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말기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설날 아침(元朝)」 시가 조선 전기까지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조선 중기와 후기에 이르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보다 '설'을 중히 여겼다는 것을 입증한다. 특히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현재 전하는 문집이 조선 중기이후의 사람들 것이 많다는 점이다. 문집이 많으니 그 속에 담긴 작품도 많을 수밖에 없다. 셋째, 조선 시대는 유교를 국교로 하였다. 그리고 接賓客·奉祭祀를 중시했다. 이러한 시대였기에, 그 후대로 넘어올수록 내면의 충실보다는 외부의 형식을 중시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다.

3. '元朝'詩의 형식적 특성

일반적으로 『韓國文集叢刊』에 실려 있는 많은 사람들의 '원조(元朝)' 시는 絶句 아니면 律詩로 되어 있다. 그리고 韻도 平聲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葛峯의 元朝 시는 『한국문집총간』에 실려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와는 句수와 韻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句수 면에서 보면, 두 수를 제외하면, 모두 長句이다.¹¹⁾ 그의 ‘원조’시 가운데 가장 먼저 지은 것(66세 때)이 5언 율시로 가장 짧다. 또 다른 한 수는 다른 사람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바로 그의 나이 일흔 되던 해 갑자년 아침에 지은 시이다. 차운한 시는 7언 율시이지만, 차운하지 않고 갈봉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은 시는 5언 40구이다. 율시를 제외한 長句 가운데 짧은 것이 24구, 긴 것은 무려 140구나 된다.

이 ‘원조’시를 지은 시기와 句數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경신(66세, 1620) 5언 율시 平聲 支韻, 신유(67세, 1621) 5언 30구 入聲 質·屑운, 임술(68세, 1622) 5언 40구 입성 質운, 계해(69세, 1623) 5언 24구 입성 質운, 갑자(70세, 1624) 5언 40구 입성 轄운과 7언 율시 평성 先운, 을축(71세, 1625) 5언 40구 입성 質운, 병인(72세, 1626) 5언 44구 평성 眞운, 정묘(73세, 1627) 5언 72구 평성 覃·鹽운과 去聲 豔운, 신미(77세, 1631) 5언 68구 거성 未운, 임신(78세, 1632) 5언 48구 입성 質운, 계유(79세, 1633) 5언 140구 上聲 有운, 갑술(80세, 1634) 5언 60구 입성 質운으로 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長句로 된 시는 葛峯 이전 시인의 작품은 栢潭 具鳳齡의 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갈봉 작품 이후는 장구로 이루어진 시가 가끔씩 보인다.

순번	題目	나이(연대)	句數	韻
1	庚申元朝	66(1620, 광해군12년)	오언올시	평성 支운
2	辛酉元朝永懷	67(1621, 광해군13년)	오언 30구	입성 質·屑운
3	壬戌元朝走草詠懷	68(1622, 광해군14년)	오언40구	입성 質운
4	癸亥元朝	69세(1623, 인조 원년)	오언 24구	입성 質운
5-6	甲子元朝 次權仁甫元朝韻	70세(1624, 인조 2년)	오언 40구 칠언올시	입성 緝운 평성 先운
7	乙丑元朝	71세(1625, 인조3년)	오언 40구	입성 質운
8	丙寅元朝	72세(1626, 인조4년)	오언 44구	평성 眞운
9	丁卯元朝	73세(1627, 인조5년)	오언72구	평성 章·豔운
10	辛未元朝	77세(1631, 인조9년)	오언68구	거성 未운
11	壬申元朝	78(1632, 인조10년)	오언 48구	입성 質·屑운
12	癸酉元朝述懷	79(1633, 인조11년)	오언 140구	상성 有운
13	甲戌元朝詠懷	80(1634, 인조12년)	오언 60구	입성 質운

둘째,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갈봉의 '원조' 시는 두 수를 제외하면, 평성 平聲 韻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3수 가운데, 11수가 仄聲 韻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入聲 韻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이 上聲, 去聲 韻이다. 평성은 발음이 짧고 語感이 부드럽다. 부드러우면서도 밝은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밝은 이미지는 開放과 進展을 의미한다. 반면, 仄聲韻은 平聲韻과는 다르다. 축성 운 가운데 上聲과 去聲 韻에 해당하는 글자는 발음이 길며 어감이 무겁다. 또 입성 운은 빠르고도 급하다. 따라서 갈봉이 '원조'시를 지으면서 대부분 축성운을 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점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심정이 어둡고, 또 마음이 조급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또 이들 시는 이미지 면에서도 밝음, 진전, 개방보다는 어두움, 정지, 폐쇄적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심상보다는 쇠락하여 활력 없는 情調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갈봉은 다양한 형식의 시를 지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의 注에서 이미 언급했다. 이 다양한 형식의 시 가운데, 「원조」시는 대부분 5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가 仄聲韻을 쓴 심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7언 시가 장중하고 부드러운 반면, 5언 시는 호흡이 빠르다. 호흡이 빠르다 보니 강한 느낌을 준다. 바로 갈봉은 詩體의 특성을 십분 살려 시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집에 여러 가지 체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호흡이 빠르면서 강한 느낌을 주는 5언 시로 결구하였으며, 그 用韻 또한 축성 운으로 한 것을 미루어 보면, 갈봉이 「설날 아침」 시를 지을 당시 그의 심정이 그다지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 시들은 모두 그의 나이 60이 넘어서 지은 것들이다. 이 시들을 지었을 당시에 그는 이미 손자·손녀를 다 본 뒤였다. 인간이 태어나 한 甲子, 즉 회갑을 지내면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질 것이다. 사육에 얽매인 사람은 더욱 욕망의 노예가 될 것이다. ‘늙어서는 원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욕심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필자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욕심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하고도 조급하게 여겨서 그럴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 갈봉의 「원조」시는 ‘오늘 아침 또 한해를 맞으니 내 나이 〇〇살이라네’라는 말로 처음을 시작한다. 그 해의 天干·地支와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같은 제목의 다른 사람들의 시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는 한 수의 시를 네 단락 또는 다섯 단락으로 구분해서 자신의 심정을 읊조리고 있다. ㉠ 天干·地支와 자신의 나이를 밝힌다. ㉡ 그리고 나서 자신이 처한 생활에 대해서 읊조린다. ㉢

그 다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데 대해서 반성한다. 이 반성은 바로 아쉬움으로 이어진다. ㉔ 다시 기분을 전환하여 처사로서의 삶을 읊조린다. 여기서는 자연과 서로 교감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낸다. ㉕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으로 자신의 심정을 위로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4. '元朝'詩의 내용과 의미

본 절에서는 갈봉의 「원조」시 가운데, 두 수만을 가려내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물론 시 전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수의 句數가 워낙 많아 분량을 맞출 수 없어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먼저 그의 나이 일흔 살에 지은 「갑자년 설날 아침(甲子元朝)」¹²⁾ 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시는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단락들을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 단락에서 시인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감회를 읊조리고 있다.

①

今日是甲子 오늘이 갑자년이 되었나니,
 吾年滿七十 내 나이가 만 일흔 살이라네.
 始覺古來稀 비로소 고희라는 말 깨달았고,
 從心亦已及 종심소욕 또한 이미 이르렀네.
 流光少不貸 흐르는 세월 조금도 빌리지 못해,
 倏如飛電急 홀쩍 번개처럼 빨리 지나갔다네.
 勳業坐潦倒 아무 것도 이룬 일이라곤 없어,
 把鏡空吁悵 거울 보며 부질없이 탄식한다네.

天干과 地支가 처음 시작하는 甲子년이다. 이 때 시인의 나이가 일흔 살이 되었다. 나이 일흔, 그것도 갑자이니 시인의 감회가 다른 해보다 더

12) 『갈봉집』 권2, 乾冊 138~139쪽.

깊을 것이다.

‘오늘부터는 이 갑자년이라고 했다’. 이 구절은 그의 「원조」시 대부분에서 시작하는 말이다. 갑자년에 시인, 즉 자아의 나이가 일흔 살이다. 그러니 이 일흔 나이에 얽혀 있는 고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杜甫의 시¹³⁾에서 말했듯이, 태어나 일흔까지 사는 사람이 예부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또 공자가 말했듯이, 나이 일흔이 되면 인생의 종착역에 가깝다. 공자는, “일흔 살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¹⁴⁾.”라고 했다. 공자의 일생대로라면, 나이 일흔이 되면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다. 법에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전혀 결함이 없다. 이러한 인격체가 이루어지려면, 젊어서부터 많은 수련을 해야 한다. 갈봉도 바로 이러한 수련의 효과를 논하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젊어서 보면 일흔 살이 되는 것은 까마득하다. 그러나 일흔이 되어 자신의 나이를 돌이켜 보면 한 순간이다. 이 한순간에 지나온 세월이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자아는 흐르는 세월은 잠시도 빌릴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바로 자신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죽는 날이 가까워졌는데, 자아는 어떠한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 이루어 놓은 일이라곤 없는 것 같다. 그리하여 거울을 보며 부질없이 탄식만 한다.

여기서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立身揚名 일 것이다. 비록 그가 선조의 유언¹⁵⁾에 의하여 대대로 벼슬을 하지 않았

13) 『全唐詩』 卷225에 실려 있는 두보의 「曲江」이라는 두 수의 시 가운데, 두 번째 시 頷聯을 보면, “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라는 구절이 있다.

14)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論語』 「爲政」篇.

15) 그의 증조부인 潭庵 金用石 (退村公派 23대)은, “남자가 성균관 진사만은 아니할 수 없으나, 대과(大科)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대의 遺訓을 따라 조부인 金籟 24대는 증종 23년(1528)에 퇴계 이황과 함께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惟一齋 金彦璣 (25대, 1520 - 1588)과 갈봉 자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과에 나아가지 않았다. 갈봉은 57세 되던 1612년(광해군 5)에 생원시에

을 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의 이름을 떨쳐 부모님을 현달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한 평생 이루지 못했다. 어쩌면 이를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아는 이 일 때문에 거울 보며 탄식하고 있다.

②

守拙可安分 고졸한 분수 지키면 편안하나니,
萬事何汲汲 온갖 일에 어찌 급급해 하리오.
不如臥山中 산 속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아,
山中有結習 산 속에 지내며 버릇 된 일 있네.
春信報梅梢 봄소식은 매화 가지에서 알리고,
東風融雪汁 봄바람에 눈 녹아 범벅이 된다네.
雲林無世態 자연 속은 인간 세상 모습 없어,
新月尋幽入 초생 달이 그윽이 찾아드느고야.

둘째 단락을 보면, 자아의 심정이 바뀌고 있다. 자아 자신이 자연과 더불어 한적하게 지내는 모습을 읊조리고 있다. 자아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분수를 지키는 것이라 했다. 그 분수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古拙한 것이다. 자신의 분수를 바로 하니 모든 일에 급급해 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분수를 바로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正名인 것이다.

자아는 자신의 분수를 안다. 자아 자신의 신분은 高官大爵이 아니다. 단지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며 학문만 하는 處士이다. 자아는 처사이기 때문에 산 속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다. 산 속에서 지내다 보니 그곳 생활에 젖어 버렸다.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응시하여 동방생원과에 2등 5인으로 합격하였다. 仁祖反正 뒤에 나라에서 세 번이나 불러 벼슬을 주려고 했으나 한번도 나아가지 않았다.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 권1, 「成均館進士潭庵諱用石遺墟碑銘」 및 『葛峯先生文集』 권4 「行狀」(357 - 364쪽)·「墓碣銘」(365 - 367쪽) 참조.

것이다. 봄이 되면 산 매화가 핀다. 이 때는 지난 해 겨울 동안 쌓였던 눈도 녹아 내린다. 계절이 바뀔에 따라 자연의 모습도 달라진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대로 자아도 살아간다.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 세상의 명예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욕심을 버렸으니 모든 사물이 자연스러이 보인다. 그리고 그 보이는 사물처럼 자아 자신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초생 달이 그윽이 자아를 비추고 있다. 초생 달은 바로 희망을 알린다. 이 뿐만 아니라 봄, 매화, 봄바람, 눈 녹음과 같은 단어들도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다. 자아가 비록 나이는 들어도 마음 한 구석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넉넉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단락은 앞의 단락과 그 이미지가 사뭇 다르다. 이 단락은 閑寂함을 뛰어넘어 清雅하기조차 하다.

③

亭臺更清寂 정대(亭臺)가 맑고도 고요하니,
景物自收拾 경물(景物)이 저절로 수습된다네.
等閒得趣多 한가로이 지내며 얻은 취미 많으니,
日猶不暇給 날마다 오히려 수급할 수가 없다네.
但願身無病 바라는 것이라곤 몸에는 병이 없고,
良朋每來集 좋은 벗들 날마다 와서 모이는 것.
與之共遊遨 그들과 함께 노닐며 즐기니,
豈敢以貌執 어찌 감히 겉모습에 집착하리오.

亭子와 樓臺가 맑고도 고요하다고 했다. 정자와 누대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치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자와 누대는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다. 그러나 그 것들은 분비는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에 두루 자리 잡는다. 이 단락에서 보면, 정자와 누대가 분비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자연 경관과 서로 어울려 소담스럽

다. 또 자아도 그곳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쩌면 자아 자신이 이러한 생활을 즐기는지 모르겠다.

자연 속에 묻혀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욕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 물론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욕망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조선 시대에 벼슬하다가 낙향한 사대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만 자연을 벗삼고 또 이를 즐긴 적도 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직을 그만두었을 때는 더욱 현실에 대한 집착이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 즉 갈봉은 그렇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비록 생원과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했지만, 그때 그의 나이는 벌써 쉰이 넘고 예수를 바라 본 때였다. 따라서 관직에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通過儀禮(Initiation)와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사대부, 즉 양반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고, 또 자신의 학문이 어느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과의례를 거치고 그는 자연 속으로 돌아왔다. 산수 속에서 지내면서 자아가 바라는 것은 몸에 병이 없는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를 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된다. 물론 병이 생기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정도가 지나치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다는 말과 같다.

자아는 병 없이 살아가면서 좋은 벗들과 노니고 싶다고 했다. 좋은 벗이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그만큼 덕이 있다는 말이다. '덕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¹⁶⁾.'고 하지 않았는가? 덕이 있는 벗들과 지내니 그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 자아는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다. 겉모습에

16) “德不孤，必有隣”，『論語』권4, 「里仁」篇.

집착한다는 것은 그만큼 物慾이 많다는 증거이다. 물욕이 많으면 사물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다. 益友들과 서로 만나 담론하니,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④

詩酒酬歲月 시와 술로 세월을 주고 받다보니,
 篇翰盈我笈 시편과 편지가 고리짝에 가득하네.
 松籟左右聞 솔바람 소리는 좌우에서 울려오고,
 花香杖屨襲 꽃향기 나는 곳 지팡이 짚고 거니네.
 湯喉吸寒泉 목이 마르면 찬 샘물 퍼서 마시고,
 飢腸供蔬粒 배가 고프면 나물밥으로 요기하네.
 四時長若斯 사시 내내 이와 같이 지낼지라도,
 一生尙不乏 한평생 오히려 부족하지 않다네.

이 단락에서는, 먼저 친한 벗들과 지내는 실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시와 술로 세월을 주고받는다 고 했다. 이것은 바로 친한 벗들과 가까이 또는 멀리서 서로 시를 짓고, 또 그에 맞춰 술을 주고받는다 는 것이다.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다. 바로 위 단락의 구체적인 물증인 것이다. 벗들과 주고받은 시나 편지가 고리짝에 가득하다고 했다. 무엇이든 가득하다는 것은 충족감과 안정감을 준다.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시와 술에 더하여 자연의 품향도 있다. 바람이 부니 소나무 가지가 흔들거리며 소리를 낸다. 이 소나무 소리는 화려하거나 풍성하지는 않다. 바로 호젓하면서 단출한 것이다. 또 소나무는 언제나 푸름을 유지한다. 자아, 즉 갈봉이 이 시를 지을 때는 물론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다. 설날 아침이니까. 그러나 그의 머리 속에는 벌써 봄이 와 있다. 꽃향기가 나는 곳을 따라 지팡이 짚고 거닌다고 했으니까.

마음속의 봄에서, 그는 자연의 섭리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 목이 마

르면 찬 샘물을 퍼서 마시고, 배고프면 나물밥으로 요기한다고 했다. 이것은 그만큼 자아의 생활이 소박하다. 이는 마치 공자 제자인 顏回¹⁷⁾가 검소하게 생활한 것과 같으며, 요 임금 때의 『擊壤歌』와도 그 운치가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그만큼 자아는 비록 가난하지만 욕심을 버리니 즐거운 것이다. 자연 질서를 거시리지 않고 그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춘하추동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노라니, 이제 한 사람의 완전한 자연인이 되었다. 그러나 자아는 한평생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하고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또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러나 자아는 그렇지 않다. 남들이 알아 주든 그렇지 않든 그냥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은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며,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온다. 봄에는 싹이 돋아나고 꽃이 핀다. 여름이 오면 꽃이 떨어지고 잎이 무성해지며 열매가 굵어진다. 가을이 되면 肅殺 氣運이 들어와 잎은 시들어 떨어지고 열매가 익는다. 겨울이 되면 잎과 열매가 모두 떨어지며, 다시 오는 봄을 위해서 그 씨앗들을 고이 간직한다. 이러한 자연 현상 부분 나누어 보면 변화가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변화가 없다. 한 해가 다하면 다시 한 해가 온다. 이 한 해의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17) “공자가 말씀하시길, ‘어질다.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시골에 있는 것을 남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다. 안회여! (子曰賢哉回也，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賢哉回也。)’” 『論語』卷6, 「雍也」 9章의 구절에서 유래한다. 송나라 程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안자의 즐거움은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 및 누추한 시골을 즐겨워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그 마음을 얽매어 그 즐거움을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 어질을 칭찬하신 것이다(程子曰，顏子之樂，非樂簞瓢陋巷也，不以貧窶其心而改其所樂也，故夫子稱其賢)”라고 한다. 위와 같은 곳, 朱熹 註.

가운데, 변화가 없다. 영원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一陰一陽이다. 『周易』에서는,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¹⁸⁾라고 했다. 지극한 이치는 변화하는 가운데 있다. 자아는 벌써 자연의 변화를 보고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던 것이다.

⑤

超然不知老 초연하여 늙는 줄도 몰랐으니,
 麻姑亦可揖 마고신선께 절 올릴 만하다네.
 於焉甘永終 어느새 좋은 시절 다 지났나니,
 何必牛衣泣 어찌 구태여 우의 입고 울리오.
 休道無相晤 밝은 도를 서로 깨닫지 못하고,
 知心有雲衲 마음 얹은 운넙에 있는 것을.
 比樂失不諼 즐거움 잃었다 탓하지 마시오,
 瞻彼山直立 보시구려 저 산 곧게 선 것을.

마지막 단락에 오면, 자아의 시선은 자연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즉, 遠心에서 球心으로의 복귀이다. 자아는 산수와 더불어 세속의 영리를 벗어나 살다보니 늙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만큼 세월이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나 어느새 늙어버렸다. 이제 麻姑 선녀께 절 올릴 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것은 그가 죽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켜보니 어느새 젊고 꽃다운 시절이 다 지났다. 그러나 구태여 牛衣입고 울 필요도 없다. 젊어서는 도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 보니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곁에 있었던 것이다. 『詩經』의 「도끼자루를 다듬음(伐柯)¹⁹⁾」장에 나오듯이

18) “一陰一陽之謂道”, 『周易』, 「繫辭上傳」 第5章.

19) 두 장 가운데 첫째 장의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도끼자루 베기를 어찌해야 하는가, 도끼가 아니면 하지 못하느니라. 아내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중매가

도끼자루를 다듬는 사람은 도끼자루가 도끼에 맞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도끼 자루 다듬는 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이 들어 보니 도는 바로 雲 衲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운납은 바로 자연 속이 아닌가?

자연 속에 도가 있기 때문에 자이는 이것을 즐긴다. 그러나 즐거움을 잃었다고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높은 벼슬, 많은 녹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도를 즐기는데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재물이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것이 자이의 심정이다.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자이는 그 자신의 삶의 교훈을 산에서 찾는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복잡하여도 산은 모르는 채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산은 또 땅위에 높이 솟아 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마치 땅 밑에 있는 것처럼 한다. 『周易』의 괘 가운데 열다섯 번째인 謙卦를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地山 謙卦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괘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남에게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남보다 우위에 있으면 잘난 채를 한다. 이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한 처사이다.

갈봉은 이 시의 마지막에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간사함을 넌지시 깨우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상당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인생 일흔에 많은 자손들을 두었다. 그것도 설날 아침에 시인은 이 자손들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이켜 한숨쉬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벗 삼아 즐거움을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이 자연과 현상을 보고 자신의 삶을 찾으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그가 죽기 3년 전, 즉 「원조」시로는 가장 늦게 지은 「갑술년

아니면 언지 못하느니라(伐柯如何, 匪斧不克. 取妻如何, 匪妹不得.) 『詩經』 卷8, 「邶風·伐柯」章.

설날 아침에 생각을 읊조림(甲戌元朝咏懷)²⁰⁾이라는 시(5언 60구)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시도 역시 다섯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째 단락부터 분석해 보기로 한다.

①

今日卽甲戌 오늘이 바로 갑술년이 되었으니,
嗟吾已八耄 아! 내 나이 이미 여든 살이라네.
憶昔是年冬 지나간 갑술년 겨울 생각하노니,
往聘成我匹 장가들어 나의 배필 맞이했다네.
同居六九載 함께 산 지 예순 아홉 해 동안,
子女婚嫁畢 아들 딸 모두 시집 장가보냈네.
如何命道奇 어찌하여 이내 팔자 기구한지,
丁卯先喪室 정묘년에 먼저 아내 여의었지.
老饘慘無倚 늙은 홀아비 의지할 데도 없이,
流年又六七 또 다시 육칠 년이 더 지났다네.
屈指計兒孫 아들 손자 손꼽아 헤아려 보니,
內外五十一 안팎으로 모두 쉰 한 명이라네.

이 시도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년이니, 내 나이 ○○살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자아는 오늘이 갑술년이며, 자신의 나이가 여든 살이라고 한다. 그의 나이가 여든 살이 된 해는 1634년(인조 12)이다.

정묘년은 1627년(인조 5)이며, 그의 나이 일흔 세 살 되던 해이다. 그의 나이 일흔이 조금 넘어 아내를 여의었다. 늙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었으니, 의지할 곳이 없다. 이제 그의 나이 여든이 되니 아내를 여윈지도 칠 년이 지났다. 칠 년 동안 아내 없이 혼자 살았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은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만큼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늙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늙어서 홀

20) 『갈봉집』 권3, 坤冊 229~230쪽.

아비가 되었으니 불쌍한 신세이다. 맹자는 鰥寡孤獨²¹⁾이 가장 불쌍한 무리들이라고 했다. 즉, 늙어서 아내 없는 홀아비, 늙어서 남편 없는 과부, 늙어서 자식 없는 무의탁자, 어려서 부모 없는 고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곤궁한 백성으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이는 아내를 여의었어도 후손들이 있는 것이 다행이라 했다. 그것도 자손들이 안팎으로 쉰 두 명이라고 했다. 시인, 즉 자아와 그의 아내를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씨앗들이 그만큼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지만, 조선 근세까지는 多産이 그 집안을 흥하게 한다. 농경 시대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이다. 물론 갈봉은 평민이 아니다.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양반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생원과 진사시에 통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반들도 자식 많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그 만큼 집안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족보상에 나와 있는 갈봉 후손들의 숫자는 아들이 2명, 孫子가 4명, 曾孫 7명, 玄孫이 20명, 仍孫이 32명이다²²⁾. 갈봉이 쉰 한 명이라고 한 것은 현손까지의 아들 과 딸을 모두 망라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이 가운데는 물론 외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족보상에는 외손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셈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②

竊幸余有後 후손들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
 誰意天莫恤 하늘 어이 불쌍히 여기지 않나.
 去年子先亡 지난해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盡傷衰朽質 늙고 쇠한 이내 몸 다 상했네.
 方在憂坎中 언제나 근심 속에 지내다 보니,
 一身嬰百疾 이내 몸에는 온갖 병 찾아왔네.

21)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孟子』 卷2, 「梁惠王」 下篇.

22)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 卷1, 26世 - 31世 參照.

精神昏且慣 정신은 흐릿하고도 심란해지고,
 阿瞶明遽失 어느새 밝은 눈도 희미해졌네.
 餘生胡不死 남은 목숨 어찌 끝나지 않는지,
 哀情增乙乙 애달픈 마음 더욱 북받친다네.
 終夜坐達朝 앉아 밤 새워 아침 되었으니,
 不覺新歲出 새해가 된 줄 느끼지 못했네.

자아는 먼저 후손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에 가면 하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음을 원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침통하기 그지없다. 그것도 지금은 바로 설날 아침이니, 몇 해 전에 죽은 아내와 지난해 죽은 아들 생각이 간절하다.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으니, 늙은 아버지 몸은 쇠할 대로 쇠했다. 자식 생각, 아내 생각에 언제나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 憂患 속에 살아가다 보니 몸에도 병이 찾아든다. 마음, 즉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다. 몸이 늙은 데다 마음마저 편안하지 못하니, 이 세상에 살아갈 맛이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이제는 정신마저 흐릿해진다. 기억력도 없어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자아 자신의 신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남은 목숨이 왜 이리 끊어지지 않는가 하고 반문한다. 물론 나이가 든 분들은 이제 죽어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는 그 마음은 다소 달라질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들이 먼저 죽은 마당에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것은 그 손자들에게 미안할 것이다. 특히 설날 아침에 차례 대신에 그 아들 빈소에 齋를 드리는 것을 보는 자아의 심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슬픔이 더욱 북받쳐 오른다.

자아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리에 눕지도 않고 앉아서 밤을 지새웠던 것이다. 그러니 날이 바뀐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그것도 목은 해가 가고 새 해 첫날이 되는 시점이니 그러한 자아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아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한 인간의 진솔한 태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단락도 마찬가지이다.

③

殯廬那忍見 아들 빈소 차마 어찌 보리오,
 孤兒泣哀經 손자들은 상복입고 눈물짓네.
 遷延幾時月 언제까지 이내 목숨 이어질지,
 襄事卜三日 사흘 간 지난 일 생각해 봤네.
 號痛亦奈何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造物盖未詰 조물주가 돌봐주지 않는 것을.
 天運固如此 천운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何須空咄咄 어찌 부질없이 혀만 차리오.
 不貳任修短 목숨 길고 짧음 다르지 않아,
 無令臥蓬華 시키지 않아도 봉필에 눕네.
 蓬華可養眞 봉필은 진리 기를 수 있나니,
 杜門堪守拙 문 닫고 고졸함을 지키겠노라.

아들 빈소를 어찌 차마 볼 것인가 하고 반문한다. 손자들이 정월 초하루라고 상복을 입고 齋奠하는 마당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자아, 즉 할아버지의 심정은 형언하기 어렵다. 아버 먼저 떠난 자식의 빈소 앞에서 손자들이 곡하며 재를 지내는 장면을 보니, 자아는 애가 끊어질 것 같다. 자아는 벌써 설날이 되기 사흘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어려서의 생활, 결혼, 자식 낳아 기르고, 아내를 여의고, 이제 아들까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처지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러한 애환을 그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천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송나라 때의 소강절 [邵雍]도 “만사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부질없이 사람들이 바쁘기만 하다

(萬事分已定, 浮生空自忙.)”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자아는 이 운명 결정론을 긍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천운이 순탄하지 않음을 원망하고 있다. 자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 허만 차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기조차 하다. 그의 일생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단했다. 자아 내면과 외부의 갈등, 학문과 현실 사이의 괴리, 사회적으로 혼란, 이민족의 침입 등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그는 태어나서 일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것은 바로 자아, 즉 갈봉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어려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크다. 그러나 그는 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의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성장하였다.²³⁾

자아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 드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은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40년 산 사람과 80년 산 사람은 수학적으로는 그 살았던 기간이 40년 차이가 난다. 그러나 긴 역사, 변함없는 우주의 순환을 두고 보면 바로 순간 또는 刹那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 속에 의지하고 있다. 자연, 즉 蓬華 岫대나 穹각지 사이에서 지내는 것은 어찌 보면 가난하기

23) 그의 시 「할머니 제삿날 제사를 지내고 감회가 있어(王母諱辰行祭有感)」(『갈봉집』 乾冊, 176쪽)라는 시를 보면 자신의 성장과정을 읊조리고 있다.

四十年來有此辰	40년 동안 해마다 이 날 있었건만,
每逢悲感倍傷神	매번 맛을 때마다 슬픔이 더한다네.
生孩遽失慈烏母	갓난아기 때 갑자기 어머니 여의고,
鞠育全依劉祖親	오로지 할머니 보살핌으로 성장했지.
罔極昊天恩一體	이 한 몸에 내려주신 가없는 은혜는,
難將寸草報三春	조그마한 정성으로는 갚기 어렵다네.
至今不盡羹牆慕	지금도 그리워하는 정 다하지 않아,
和淚題詩祇自陳	혼자서 읊조리면서 눈물만 짓는다네.

그지없다. 그러나 앞의 시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결 더 떠서 가난하게 생활하면 진리를 기를 수 있다고 했다. 여가서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검소하고 소박하다는 것이다. 즉, 物慾이 없다는 것이다. 물욕이 없으면 청렴해질 수 있다. 청렴해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道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아는 문 닫고 古拙한 맛을 지키겠다고 했다.

‘古’와 ‘拙’ 두 글자는 겉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미면에서 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다. ‘古’는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예스럽다는 것은 수식이 없는 것을 말한다. ‘拙’도 마찬가지이다.拙하다고 하면, 꾸밈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의 소박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수함과 소박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품이 높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아는 겉으로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고졸함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은연중 자신이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단락에서는 다시 자신의 일생을 회상하고 있다. 즉,

④

回瞻浮世事	부질없는 인생사 돌아다보니,
世路多蹉跎	세상 일 어긋남 많기도 하네.
豈如此山中	어이해 이 산 속에서 지내며,
牛衣安且吉	우의 입고 편안히 지냄만 하리.
俟命以考終	이내 목숨 천명 다하길 기다려,
不求所難必	이루기 어려운 일 바라지 않네.
但恨老已矣	다만 늙어버린 것 안타깝나니,
鷹揚愧無術	출세에 재주 없음 부끄럽도다.
年來太踈慵	새해가 와도 힘 크게 빠졌으니,
何事能着實	무슨 일인들 착실히 할 수 있나.

魚魯昏不成 혼미해 어노도 구분하지 못하고,
欵床散書帙 아! 책상 위에는 흩어진 책들만.

자아는 인생을 부질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 말은 물론 佛家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와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를 떠나서 나아가 들어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아닐까? 자아가 느끼는 허무감은 바로 세상 일이 자신의 생각과는 어긋남이 많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立身出世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이는 갈봉이 살았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갈봉은 입신출세하지는 못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의 증조부인 潭庵 金用石의 “남자가 성균관 진사만은 아니할 수 없으나 대과[文武科]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유언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의 일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반은 정해진 것이었다.

자아는 이에 산 속에서 지내며 牛衣 입고 가난하게 지냄만 못하다고 했다. 牛衣는 본디 겨울에 소에게 입히는 짚으로 만든 거적때기다. 『漢書』에 “왕장이 병이 났으나 덮을 것이 없어 우의를 입고 누워 있었다²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에 顏師古는 “우의는 삼으로 들쭉날쭉 짠 것인데, 곧 요즘 세상에서 용구라고 부르는 것이다(牛衣編亂麻爲之, 卽今俗呼爲龍具者).”라고 注를 달고 있다. 여기서의 의미는 물론 소에 입히는 거적때기가 아니다. 바로 자아 자신이 그만큼 가난하다는 말이다. 자아는 이 단락에서, 우의와 서로 비교되는 대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비단옷이다. 비단옷은 평민이 입는 것이 아니다. 비단옷은 바로 관리들이 입는 옷이다. 물론 갈봉은 관직에 제수 되기는 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단지 그는 外寇의 침입에 의병을 일으켜 참여했을 뿐이다.

자아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항상 괴롭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지내

24) “章疾病，無被，臥牛衣中” 『漢書』권 「王章傳」.

면서 천명을 다하기 바란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니는 복 가운데, 가장 마지막의 것이 바로 천명을 다하는 것, 즉 考終命²⁵)이다. 이 考終命을 송나라 蔡沈은 “순히 그 바른 명을 받는 것(順受其正也)”라 하고 있다. 이처럼 자아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생을 마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오면 자아의 마음은 아쉬움으로 변한다. 출세하지 못하고 그냥 늙어버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아는 늙어 한 해가 바뀌었지만, 기력이 없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기분으로 하는 일에 임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아는 이제 늙어 힘이 없으니,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설령 의욕이 있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 자아는 정신도 혼미해 간다. 그는 ‘魚’와 ‘魯’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다. ‘魚魯’는 무식해서 ‘魚’자와 ‘魯’자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南朝시대 梁나라 元帝의 「玄覽府」에 “먼저 魚와 魯를 연적하고, 이에 陶와 陰을 紛定한다.”고 하고 있다. 魚魯 또는 魯魚와 연결되는 숙어는, 魚魯帝虎, 魚魯亥豕, 魚魯陶陰 등이 있다. 글자가 서로 비슷한 것끼리 연결시켜 놓았다.

글자에 따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책들이 널려 있다. 이것은 바로 자아 스스로 선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책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정신세계를 추구할 수 있으니, 선택받은 신분이다.

⑤

願念平生志 평생 먹은 뜻 돌이켜 생각하니,
尙期有始卒 아직까지 처음과 끝 기억한다네.
倘或假我年 몇 년 동안만이라도 더 산다면,

25) 『書經·周書』 「洪範」에, “아홉번째 오복은 첫째는 수(壽)이고, 둘째는 부(富)이고, 셋째는 강령(康寧)이고, 넷째는 덕을 좋아함(攸好德)이고, 다섯째가 고종명(考終命)이다(九五福,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이라 하고 있다.

庶得自休逸 스스로 편안함을 얻을 것이리니.
 願與諸朋舊 바라건대 여러 분 벗님네들이여,
 耆會效眞率 기로회의 진솔함을 본받을지라.
 餘外復何爲 이 밖에 다시 또 무엇 하리오,
 萬事一蟻垤 온갖 일 다 개미 둑 같은 것을.
 知心是寒梅 마음 아는 이는 찬 매화뿐이니,
 獨慰我遺佚 나 홀로 아들 여윌 위로하누나.
 沈憂無以解 깊디깊은 근심을 풀 길이 없어,
 悲吟付信筆 슬피 읊조려 이내 생각 부치네.

위 단락에서 자이는 자신이 이미 늙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자이는 자신이 늙었지만, 그래도 처음 먹은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처음 먹은 뜻은 무엇일까? 그의 이상은 관직보다는 학문 성취일 것이다. 몸이 비록 쇠약해졌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희망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

또 자이는 壽命을 연장하길 바라고 있다. 수명을 연장하여 富貴를 축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며, 편안한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도 자아 혼자만이 아니다. 나이 든 벗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마치 竹林七賢들이 그렇게 했듯이, 또 고려 시대 竹林高會七賢들이 그렇게 했듯이, 耆老會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려 한다.

갈봉, 즉 자아의 희망이 순수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이는 이밖에 또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반문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달고 쓴 것을 다 경험한 자아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개미 둑 같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 ‘개미[蟻]’라는 말은 퇴계 이황의 문집에도 몇 차례 나타난다. 그 가운데 여기서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이 ‘개미가 곡식 낱알을 지다(蟻戴粒)’이라는 말이다²⁶⁾. 또 李公佐의 「南柯太守傳」에 나오는 淳于棼의 이야기와

26) 『退溪文集考證』을 보면, “동해의 자라가 봉래산을 이고 푸른 바다에 놀았다. 이에 개밧둑의 개미가 말하기를, ‘저가 산을 인 것이 내가 곡식 낱알을 이고 흙무더기 위에서 소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東海龍, 冠蓬萊遊滄溟, 垤

도 서로 관련이 있다.²⁷⁾ 우리는 이것을 南柯一夢이라 한다. 이처럼 인생도 어쩌면 순우분이 꿈에 남가군 태수가 되었다가 꿈에서 깨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처럼 부질없는 인생에서 오직 자아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은 찬 매화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매화를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즉, 그는 눈서리를 이기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매화처럼 자신의 끈질긴 생명력 또는 지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역경을 이겨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이러한 자아의 꽃꽂함이 무너져 버린다. 슬퍼도 누가 자아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슬픈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 답답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화병에 걸린다. 그러나 자아는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글로써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서는 물론 시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면 생각이지만, 글로 드러내면 시가 되기[在心爲志, 發言爲詩]²⁸⁾ 때문이다.

이상으로 갈봉의 「원조」시 가운데 두 수를 분석해 보았다. 두 수의 시만 두고 보더라도, 갈봉은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표

蟻曰, 彼冠山, 何異我戴粒, 逍遙於封養之巔.)”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장자』에 나온다고 하나, 『장자』에는 이 기록이 없고 『藝文類聚』나 『太平御覽』 등의 기록을 보면, 『符子』의 말로 인용되고 있다.

27) 역시 『退溪文集考證』을 보면, “순우분이 회나무 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누워 꿈을 꾸었는데, 두 사자가 와서 이르기를 ‘괴안국에서 당신을 맞이합니다.’라 하고는 늪은 회나무 구멍을 가리키며 그 속으로 인도하였다. 그 국왕이 이르기를, ‘남가군이 다스리기 어려우므로 그대를 태수로 삼겠다.’고 하였다 한다. 순우분이 꿈에서 깨어 회나무를 살펴보니 그 구멍에 탐 하나를 수용할 만한 자리에 커다란 개미가 있으니 그것이 곧 국왕이요, 또한 구멍이 줄곧 남쪽 가지로 오르게 되었으니, 이곳이 곧 남가군이였다(淳于棼飲槐下, 醉臥夢, 二使曰, 槐安國奉邀, 指古槐入穴中, 曰, 大槐安國王曰, 南柯郡不理屈, 卿爲守. 寤尋槐下穴可容一榻, 有大蟻, 乃王也, 一穴直上南枝, 卽南柯郡也.)”라는 말이 나온다.

28) 鄭玄, 「詩經大序」.

현하는 방법도 긍정적 기법과 부정적 기법을 아울러 구사하고 있다. 즉, 희망과 실망을 서로 교차시켜 理보다는 情을 주로 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갈봉의 「설날 아침」 시는 宋詩보다는 唐詩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는 시 속에서 ‘古’와 ‘拙’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시켜, 자신의 순수함과 소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그의 생활은 검소했으며, 가난한 가운데 도를 즐긴 顏回의 생활과 그 맥이 통한다.

5. ‘元朝’詩의 사적 의의

앞의 제 2절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중국 『全唐詩』에는 「원조」시가 한 수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牧隱 李穡, 楊若齋 金九容, 陶隱 李崇仁으로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²⁹⁾ ‘원조’라 이름이 붙은 시가 150여 수(편)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물론 시가 아닌 文도 있다. 文으로 된 것은 ‘序文’이 대부분이다.

序文 몇 편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140여 수의 시가 존재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이런 제목의 시가 별로 없는 것인가? 물론 시기적으로 서로 차이가 나지만, 『전당시』에 한 수가 나오며, 宋代 시인들의 시집 안에는 이러한 제목의 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점을 미루어 보면, 중국에서는 이 설날을 그다지 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을 대단히 중하게 여겼다는 말이 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설날 아침(元朝)」 시 가운데 한 두 사람의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는 五·七言 絶句 아니면 律詩이다. 그 예외는 목은 이색의 시가 장단격³⁰⁾으로 이루어졌고, 晦齋 李彦迪의 「설날 아침 다섯

29) 이 통계는 『韓國文集叢刊』 240책까지에 실려 있는 내용을 검색해 본 결과이다.

잠언(元朝五箴)³¹⁾과 栢潭 具鳳齡(1526 - 1586)의 「설날 아침 감회(元朝感懷)」³²⁾시, 桐溪 鄭蘊(1569 - 1641)의 「설날 아침 스스로 경계하는 잠언(元朝自警箴)」³³⁾, 白江 李敬輿(1585 - 1657)의 「설날 아침 생각을 적어 김도원[세림]에게 줌(元朝書懷金道源世濂)」³⁴⁾

위에서 볼 때, 栢潭 具鳳齡의 시를 빼면 晦齋와 桐溪의 작품은 시가 아니라 ‘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箴’은 물론 5언이나 7언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4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시이면서 장구로 된 것은 백담과 백강의 작품뿐이다. 그리고 백강은 갈봉에 비해서 뒤에 태어난 사람이다. 따라서 갈봉이 백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갈봉의 작품은 백담의 것에 다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栢潭³⁵⁾과 葛峯은 같은 안동 출신이면서 서로 師弟之間이다. 또 백담은 퇴계의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백담집 서문을 보면, “퇴계 선생께서 영남 지방에 도를 일으켜 후진을 일깨우시니, 일시에 뛰어난 선비들이 찬란히 배출되었다. 문학 방면을 논한다면, 高峰 奇公(기대승)과 栢潭 具公 두 분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퇴계 선생께서 두 공에 있어서는 그 자리를 물려 주시면서도 아가와 하시지 않으셨고, 두 공은 제자의 예를 지켜 더욱 경건하셨다³⁶⁾”고 한

30) 『牧隱詩藁』卷31. 牧隱의 작품은 7언이 17구, 9언이 2구로 되어 있다.

31) 『晦齋集』卷6.

이 가운데, 「畏天箴」은 4언 32구, 「養心箴」은 4언 48구, 「敬身箴」은 4언 54구, 「改過箴」은 4언 20구, 「篤志箴」은 4언 30구로 되어 있다.

32) 『栢潭集』卷5. 栢潭의 「元朝感懷」는 5언 22구이다.

33) 『桐溪集』卷2. 桐溪의 「元朝自警箴」은 4언 52구로 되어 있다.

34) 『白江集』卷1. 白江의 「元朝書懷金道源世濂」은 5언 古詩 22구이다.

35) 栢潭 시의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少小失恩育, 一生長愁疾. 風木不相待, 松楸痛蕭瑟. 那知羈宦來, 十年窮歲律. 開山隔千里, 曠不薦芬苾. 客懷苦無憑, 哀咽何由畢. 隣舍客情歡, 佳辰逢此日. 生者罄滄兮(γ+髓), 死者薦薶醉. 嗟我獨何人, 悲吟淚盈筆. 領原亦悽喪, 卽事難具述. 祠殘廢無主, 夢想增惕怵. 眷戀尙未歸, 生三義如一.”

36) “退陶老先生倡道東南獎就後進, 一時魁頎之士彬然輩出, 若論文學之科, 高峰奇公·栢潭具公二先生, 卽其人焉, 蓋老先生於二公, 遜臯比而不居, 二公則執弟子禮益虔

다.”는 말이 있다.

백담은 고봉 기대승과 함께 문학 면에 있어서 퇴계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갈봉이 백담에게서 배운 것은 물론 경학도 있겠지만, 문학 방면의 소양도 길렀을 것이다. 또 시의 내용을 보아도 대체로 백담의 것과 전개 양상이 비슷하다. 이는 서로 비슷한 처지로 생활하였다. 실제 백담은 일곱 상에 어머니를, 열한 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러나 백담은 관직에 나아가 대사헌, 병조·형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이 점에서 보면 갈봉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어릴 때의 자신의 삶을 백담은 시의 처음에, “어려서 부모의 보살핌 잃고, 일생 동안 근심 병 속에서 지냈네(少小失恩育, 一生長愁疾).”라고 읊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밝힐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할애하기로 한다.

갈봉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갈봉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갈봉의 「설날 아침(元朝)」 시가 나온 것은 그의 만년이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경험하고 난 뒤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는 일생동안 벼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애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시 곳곳에서 나타나는 비장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가 비록 위대한 성리학자 밑에서 공부했고, 그 자신 또한 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시 가운데 「설날 아침(元朝)」 시만 두고 볼 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위에 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고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뒤에 나온 시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비통함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아침(元朝)」시를 지은 시인이 많다. 갈봉도 그 시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작품 편수로 보면 다른 사람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다. 그 가운데 모두 5언 고시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 수의 분량도 다른 시인들의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화답한 7

云.”『栢潭集』「序文」.

언 율시 한 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작품은 최소한 5언 24구이다. 그리고 긴 것은 140구에 이른다. 이것은 바로 갈봉이 그만큼 詩才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만큼 그의 넉넉한 詩才로 남들과 다른 독특한 형식의 시를 지었다. 이 점은 우리 한문학사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작품이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다.

6. 맺음말

본고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경상도 안동에서 순수 처사로 살다 간 갈봉 김득연(1555 - 1637)의 다양한 작품 가운데, 제목이 「설날 아침(元朝)」이라는 말이 들어간 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고려 말기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설날 아침(元朝)」시가 조선 전기까지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조선 중기와 후기에 이르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보다 우리나라, 특히 조선 시대에는 설을 중히 여겼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현재 전하는 문집이 조선 중기이후의 사람들 것이 많다는 점이다. 문집이 많으니 그 속에 담긴 작품도 많을 수밖에 없다. 셋째, 조선 시대는 유교를 국교로 하였다. 그리고 接賓客·奉祭祀를 중시했다. 이러한 시대였기에, 그 후대로 넘어올수록 내면의 충실보다는 외부의 형식을 중시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갈봉 작품의 형식적 특성은, ① 句數면에서 보면 모두 長句로 되어 있다. ② 用韻 면에서 보면 平聲韻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③ 5언 長句로 호흡이 빠르다. ④ 지은 시기 면에서 보면, 모두 그의 만년에 지은 것이다. ⑤ 모두 일정한 전개 순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섯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각각 단락마다의 의미가 있다. 즉, 자신의 내면과 현실 생활과의 괴리, 이로 인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연에의 귀의로 위안을 얻는 양상으로 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한 수의 시를 다섯 단락으로 구분해서 자신의 심정을 읊조리고 있다. ㉠ 天千·地支와 자신의 나이를 밝힌다. ㉡ 그리고 나서 자신이 처한 생활에 대해서 읊조린다. ㉢ 그 다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데 대해서 반성한다. 이 반성은 바로 아쉬움으로 이어진다. ㉣ 다시 기분을 전환하여 처사로서의 삶을 읊조린다. 여기서는 자연과 서로 교감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낸다. ㉤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으로 자신의 심정을 위로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 표현 방법도 긍정적 기법과 부정적 기법을 아울러 구사하고 있다. 즉, 희망과 실망을 서로 교차시켜 理보다는 情을 주로 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갈봉의 「설날 아침」 시는 宋詩보다는 唐詩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는 시 속에서 ‘古’와 ‘拙’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시켜, 자신의 순수함과 소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그의 생활은 검소했으며, 가난한 가운데 도를 즐긴 顏回의 생활과 그 맥이 통한다.

시인들 가운데 「설날 아침(元朝)」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으며, 장편으로 시인의 시적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갈봉의 작품이 그 앞 시대와 뒤 시대의 작품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갈봉의 ‘설날 아침’ 시가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상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본고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우리나라 문집에 나오는 「설날 아침(元朝)」시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본고에서는 분량관계상 이 시들을 모두 언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참고문헌

『韓國文集叢刊』(1-240책)

金得研, 『葛峯先生文集』, 서울: 許巖社 影印本, 1982.

金彦璣, 『惟一齋先生實記』, 대전: 回想社 影印本, 1988.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1~4冊).

李晃, 『退溪集』, 大田: 學民文化社 影印本.

李彦迪, 『晦齋集』, 大田: 學民文化社 影印本.

金容稷, 「葛峯 金得研의 作品과 生涯」, 『創作과 批評』7권 1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 봄.

宋政憲, 「葛峯先生의 遺墨考」, 『論文集』10, 청주: 충북대학교, 1976.

「葛峯 時調考」, 『朝鮮前期 言語와 文學』, 대구: 형설출판사, 1976.

李九義, 「葛峯 金得研의 文學世界」, 『韓國哲學』30,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1. 12.

李九義, 「葛峯 金得研의 止水亭詩와 止水亭歌攷」, 『南冥學研究』1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2. 2.

이상원, 「16세기말~17세기초사회동향과 김득연의 시조」, 『어문논집』31, 서울: 고려대 국문과, 1992.

李周妍, 「金得研 時調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1996.

金周漢, 『韓國文學批評史論』, 대구: 學士院, 1998.

詹幼馨, 『司空圖詩品衍釋』, 臺北: 仁愛書局, 1985, 外 多數.

투고일 2003. 6.23 심사시작일 2003. 7.7 심사완료일 2003. 7.22

Abstract

Study on *the Morning of New Year's Day* by Gal-bong,
Kim Deuk-yeon

Lee, Ku-eui

This thesis makes poems titled *the Morning of New Year's Day*, and also part of it, among Kim Deuk-yeon's(1555~1637) various works, object of study. He lived a life of a genuine retired gentleman ranging from 16th to 17th.

Into historical research, one poem in Tang period in China, afterwards, few poems are found. In Korea, Such poems begin to appear at the close of Koryo, many poems has been found out covering from the middle years to latter years of Chosun. The fact that poems with same title are many proves that we Koreans make much of 'the morning of New Year's Day' as much.

There are five formal characteristics in his poems. ①Viewing from numbers of passage, all has long passage. ②From the use of rhyme, he don't use a rhyme of Pyung-seong. ③Five-line long passage, rapid is breathing. ④From his time of writing poems, all are written in his latter days. ⑤all has a regular order of development .

Viewing from the content of his poems, they consist of five paragraphs. Each paragraphs has their own meaning; disparit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lives, anxiety for it, and to get consolations in converting into Nature.

The significance of his works in Korean literary history, of poets, he bequeaths the most works titled the morning of New Year's Day, and also he show his poetic genius fully in his long poems. More than anything else, his works plays a role of 'breach' joining works of former ages and later ages.

keyword

the morning of New Year's Day(元朝), form, content, a retired gentleman, significance

葛峯 金得研의 「元朝」詩 攷

이 구 의

본고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경상도 안동에서 순수 처사로 살다 간 갈봉 김득연(1555-1637)의 다양한 작품 가운데, 제목이 「元朝」라는 말이 들어간 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한 수가 있고 그 뒤로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부터 이러한 제목의 시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동안 많은 수의 작품이 있다. 같은 제목의 작품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설'을 중히 여겼다는 것을 입증한다.

갈봉 작품의 형식적 특성은, ① 句數면에서 보면 모두 長句로 되어 있다. ② 用韻 면에서 보면 平聲韻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③ 5언 長句로 호흡이 빠르다. 이들 시는 이미지 면에서도 밝음, 진진, 개방보다는 어두움, 정지, 폐쇄적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심상보다는 쇠락 하여 활력 없는 情調를 드러내고 있다. ④ 지은 시기 면에서 보면, 모두 그의 만년에 지은 것이다. ⑤ 모두 일정한 전개 순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섯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각각 단락마다의 의미가 있다. 즉, 자신의 내면과 현실 생활과의 괴리, 이로 인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연에의 귀의로 위안을 얻는 양상으로 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인들 가운데 「元朝」라는 제목의 작품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으며, 장편으로 시인의 시적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갈봉의 작품이 그 앞 시대와 뒤 시대의 작품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것이 갈봉의 「元朝」시가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상이다.

주제어 元朝, 형식, 내용, 양반, 처사, 고졸(古拙), 의의